

광남시론

박찬용

통일부 통일교육위원 정치학 박사



노르웨이 출신 세계적인 평화학의 창시자이자 세계평화네트워크 소장인 ‘요한 갈통 (Johan Galtung)’ 교수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세계의 중심국가가 될 수 있다고 지금부터 40년 전 1972년에 발언했다. 그는 남북한을 수없이 드나든 세계적인 학자로서 당시 그의 말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세상에서 그 어떤 나라도 한반도처럼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4개의 초강대국에 노출된 나라는 없다. 한편 죽은 그들 강대국들의 언어를 알며 그들의 정치와 문화에 대한 통찰력을 갖고 있으며 그들 나라들에 누구보다도 더 많이 알래했고 또 오랫동안 거주경험을 갖고 있다. 이러한 초강대국의 정중양에 위치한 한국인의 입지는 그들 모두에게 엄청난 잠재력과 가능성 그리고 장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지정학적 입지는 한민족에게 중요한 세계적 리더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한반도 분단의 고초가 비극이라고 하기 보다는 분단국이 함유하고 있는 다양성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는 훨씬 다행스러운 전화위복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다양성이 보존되고 주민들이 상호교류하며 서로 왕래 할 수 있다면 그들 서로 상이한 체제간의 자유경쟁이 그들로 하여금 보다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기고

통일 한반도는 세계의 중심국가가 가능한가

한편, 지난 2020년 세계적인 미래학자 짐 데이토 (James Alien Daotr) 교수는 한국을 향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리더십을 주문했다. 짐 데이토는 1967년 앨빈 토플러와 더불어 미래협회를 만든 미래학 분야의 선구자로 미래학의 아버지로 불린다. 세계 미래연구연맹 회장. 하와이 대학교 미래학연구센터 센터장을 역임했다. 데이토는 지금까지 모델로 삼았던 미국 등의 서구 중심 모델이 수명을 다했고 한국은 더 이상 따라갈 모델이 없다며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한국은 최초 꿈의 사회 (Dream Society)에 진입할 국가라고 주장한 데이토는 TBS와의 인터뷰에서 꿈의 사회로의 진입 가능성을 한국을 통해 보았다고 말했다. 현 사회는 농업사회,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화 사회에 있다. 데이토는 그 다음 인간사회가 나아가야 할 단계를 ‘꿈의 사회’라고 보고 있다.

그 사회는 최초의 인류처럼 경제적으로 일할 필요 없이 AI에 기반한 풍성한 자연 속에서 평화롭게 사는 사회를 말한다. 그는 문화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것이 주가 되는 것이 꿈의 사회라며 이런 시대에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경험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회가 급격하게 변혁될 것이다. 데이토는 미래학자들이 꿈의 사회로 진입한 최초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데이토는 지난 2004년 한류에 대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 논문을 통해 대한민국이 대중문화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리더십이 있었던 국가라고 정의했다. 그는 ”꿈의 사회에서는 사람들에게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감동을 주는 것으로 부자가 되며 유명해질 수 있는 길이다. ‘오징어게임’ ‘기생충’과 같은 경우 미

국의 아카데미상을 여러 부문에서 받았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악 드라마 영화를 만들어 더욱 부유해지고 유명해지는 사회가 꿈의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의 드라마를 세계 곳곳에서 시청하고 있다. 동서양을 가로질러 전 세계인들에게 감성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어필하고 있고 이러한 현상이 꿈의 사회를 만드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토는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구 모델은 경제발전이 핵심 목표였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은 다양한 분야에서 도전받고 있다.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AI를 중심으로 삶의 의미가 달라질 것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스스로 리더가 되어 세계를 이끌어 나아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데이토는 한국이 앞으로 따라갈 모델은 없다. 카이스트에서 강의를 하면서 많은 학생들을 만났는데 과거 50년 동안 한국사회가 기존의 모델로 성공을 거두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모델로 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강조하며 한국이 글로벌 리더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이 더 이상 추종할 리더가 없다. 이제는 한국이 스스로 리더가 되어 최초로 세계를 이끌어 나가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한국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현명하며 국민들은 근면성실하고 교육수준도 높다고 언급했다. 앞으로 창의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며 꿈의 사회를 목표로 나아가기를 주문했다.

미래학이란 하나의 미래를 예지 (Predict) 하는 점쟁이 같은 학문이 아니며 대안 가능한 여러 미래들을 예측 (forecast) 하는 학문이다. 세계적인 석학인 요한 갈통 (Johan Galtung) 교수와 저명한 미래학자 짐 데이토 (James Alien Daotr) 교수의 예측대로 통일된 한반도가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길 간절히 기대해 본다.

사설

전남권 국립의대 담판…좋은 협상 선례되길

또 다시 ‘빈손’이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위한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의 막판 담판도 끝내 소득없이 마무리됐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지난 2일 목포대 총장과 순천대 총장, 목포시장, 순천시장, 양 지역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과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재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는 교육부의 대학 통합 절차를 앞두고 마련된 마지막 중재 자리였지만 역시나였다.

참석자들이 대학병원 배치 문제 등 대학 통합 추진 방안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지만 의과대학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노출한 것이다.

목포대는 통합대학 본부를 순천에 두고 의과대학은 목포에 설치하는 절충안을 유지했지만 순천대는 통합대학 본부는 목포에 두되 의과대학과 대학병원은 순천에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통합특별시가 정부에 통합대학 신청서 제출기한을 오는 10일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 양 대학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해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협상의 불씨는 남겨놴다. 앞으로의 추가협상은 통합특별시와 지역 정치권이 관여하지 않고 양 대학이 자율적으로 진행키로 했지만 협상이 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협상 시한이 사실상 연장돼 극적인 타결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지만 의대 소재지를 둘러싼 양 대학의 입장 차가 여전히 남은 협상 역시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은 일반적으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당사자들이 대화와 조율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을 말한다.

특히 좋은 협상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의 구조를 설계해 실행 가능한 결과를 만드는 것을 뜻한다. 즉, 제한된 자원을 놓고 경쟁하기보다 상호 이익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통합적 협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양 대학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국립의대가 없는 전남권에 의대설립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대립하는 양 지역이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 최악의 공멸로 치닫는 ‘차킨게임’이 아닌 상호 이익을 만들수 있는 좋은 협상의 선례를 남겨주길 간절히 바란다.

극한폭염 일상화…슬기로운 여름나기 절실

가히 역대급 무더위다. 극단적인 고온 현상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 광주에 3일 첫 폭염중대경보까지 발효된 것이다.

전남광주 폭염중대경보 발령지역은 광양·여수·보성·광주·순천 등 5곳으로 확대됐다. 나머지도 폭염경보 (체감 온도 35도 이상) 나 폭염주의보 (33도 이상) 가 발령됐다. 지난 6월 처음 도입된 폭염중대경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 또는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예상될 때 발령되는 극한 폭염 경고다. 이 경보가 내려진 지역은 한낮 야외활동을 즉시 중단하고 물·그늘·휴식을 확보해야 한다.

이날 광주는 최고기온이 38도까지 치솟았고 광양은 2일 최고기온이 41.0도까지 오르며 1934년 기상 관측 이래 전남에서 관측된 기온 중 최고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잠 못 드는 밤’도 여전했다.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열대야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밤낮을 가리지 않는 극한 더위에 인명 및 산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1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889명, 추정 사망자는 14명으로 집계했는데 전남광주에서도 169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전남광주 가축피해는 2일 기준 145개 농가 5만5061마리 (재산 피해 8억4400만원) 가 폐사했고 수산피해도 8개 어가 9만8800마리 (4억2300만원) 가 폐사했다.

문제는 기상청이 최근 영남지역을 뜨겁게 달군 기록적인 폭염이 이번 주부터 수도권과 호남까지 번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다 이날 중순까지 계속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한반도 상공에 티베트고기압과 북태평양고기압이 동시에 자리하면서 매우 뜨거운 공기가 두껍게 쌓여 있는 게 주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즉, 상층과 하층의 강한 고기압이 겹치면서 햇볕에 달궈진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하는 이른바 ‘열돔현상’ 구조가 형성돼 기온을 더욱 끌어올리고 있다는 것이다.

폭염은 이제 시민의 삶과 산업 현장을 위협하는 여름철 재난이 됐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과할 정도로 취약계층과 노동자 보호 강화 대책과 농축수산물 피해 예방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시민들도 ‘물 섭취와 그늘 휴식’, ‘취약시간 작업 중단’ 등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슬기로운 여름나기를 해야 할 때다.

김강현

통합특별시장의원



가을철, 들녘을 지나다 보면 벼 수확 후 남겨진 볏짚 더미를 쉽게 볼 수 있다. 어떤 볏짚은 잘게 썰려 다시 논으로 돌아가고, 어떤 볏짚은 외지로 실려 나간다. 길으로 보기에 단순한 농작업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선택은 논지 양분과 쌀 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다.

최근 농촌 현장을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 중 하나가 “논 힘에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다.

예전에는 같은 양의 비료를 사용해도 벼가 튼튼하게 자라고 수확량도 안정적이었지만, 최근에는 병해충 발생이 늘고 벼의 생육 상태도 불안정하다는 호소가 많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원인 중 하나로 제기되는 것이 바로 볏짚의 부반출 증가다.

볏짚은 단순한 부산물이 아니다. 벼가 한 해 동안 흡수한 유기물과 양분이 담긴 소중한 자원이다.

이를 다시 논에 돌려주면 토양 유기물 함량이 높아지고 미생물 활동이 활발해져 흙이 살아난다. 반대로 볏짚원원이 없어지면 토양은 점점 메말라가고, 결국 화학비료의

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토양 유기물이 부족하면 개췌무늬병과 같은 병해충 발생 위험이 커진다. 병이 생기면 농가는 더 많은 약제를 사용해야 하고 이는 곧 생산비 증가로 이어진다. 또 농업 환경에도 부담이 커진다.

결국 볏짚 환원은 단순히 한 가지 농법의 문제가 아니라 생산비 절감과 환경 보전, 쌀 품질 향상을 함께 이루는 기본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볏짚환원사업은 유기농 단지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다. 유기농 단지에 대해서는 해당 25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실제로 논의 상당 부분은 일반 농가가 경작하고 있다. 지역 약화 문제 역시 특정 단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정책도 이제는 더 넓게 바라봐야 할 때다.

필자는 볏짚환원사업을 일반 농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논 규모가 크지 않은 중소농일수록 볏짚 환원을 위한 작업비 부담이 크다. 볏짚을 잘게 절단하고 가을갈이를 하는 데 추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부담 때문에 볏짚을 판매하거나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정책이 현실의 부담을 덜어주지 못하면 좋은 취지의 사업도 확산되기 어렵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차원에서 농지 지역 보전과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확대할 정책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별시에서 일반농가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마련하고 시·군·구와 함께 분담 구조를 만든다면 더 많은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지역은 전국 최대의 쌀 생산지 가운데 하나다. 우리가 생산하는 쌀의 경쟁력은 단순히 품종이나 기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다. 결국 흙이 살아야 쌀이 살아나고, 쌀이 살아야 농가 소득도 지켜진다.

농업은 논밭의 수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산업이다. 오늘 볏짚 한 단을 논에 돌려주는 일은 내년 농사를 위한 준비이자, 10년 뒤에도 이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일이다. 토양은 한 번 힘을 잃으면 회복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지금의 작은 투자와 정책 변화가 미래 세대의 농업을 지키는 가장 값진 선택이 될 수 있다.

농민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 많은 농가가 “볏짚은 원래 논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한다. 다만 현실적인 비용과 노동 부담 때문에 실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행정이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간극을 메우는 것이다.

이제 볏짚환원사업을 유기농 단지에만 머물게 해서는 안된다. 일반 농가까지 확대해 우리 지역의 모든 논의 다시 힘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볏짚 한 단이 지키는 것은 단순한 흙이 아니라, 통합특별시 농업의 미래와 식량 주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취재수첩

기초의회, 진정한 협치 이뤄나가길

이산하

정치부 차장



지난달 1일 출범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초의회가 원구성을 마치고 의정활동에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각 기초의회는 개원과 함께 ‘상생’, ‘소통’, ‘포용’ 등을 개원사에 공통으로 적어 넣으며 협치를 약속했다.

개원 1개월이 지난 현재 면면을 살펴보면 협치는 실종된 모습이다. 대부분의 기초의회는 원구성 과정에서 다수당의 독점적인 모습을 보였고, 소수당의 교섭단체 구성도 막아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광산구의회에서는 김은정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산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가 결정됐다.

조례안은 광산구의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와 등록 절차 등을 마련하고,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의원 3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운영위는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놓고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추후 재논의하기로 한 것이다.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에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어 결국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북구의회에서도 교섭단체를 구성한 소수당 의원들이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1시간 넘는 토론과 정회 끝에 결

국 부결됐다.

서구의회에서는 제1호 조례안으로 진보당 의원들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원내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을 준비 중이지만 다수당인 민주당의 벽을 넘기에는 어려워 보인다.

소통과 포용을 내건 각 기초의회는 소수당과의 협치를 외치고 있는 것이다.

반면, 나주시의회는 상임위원장 자리 중 절반인 2석을 야당에 양보했다. 제9대 전반기 의장 선거를 둘러싼 금품수수 논란과 각종 잡음으로 상당한 혼란을 치른 것을 계기로 10대 들어서면서 오직 ‘시민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원구성 단계부터 상생의 틀을 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앞으로 여러 기초의회에서 교섭단체 구성이 추진되거나 다수당과 소수당의 의견대립이 있을 것이다. 각 기초의회에서 나주시의회가 보여준 ‘상생’을 본보기 삼아 오직 지역민만을 바라보는 협치를 이뤄나가길 기대해 본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 양진석	대표이사 발행인	차재진	사정편집인 이승배	주필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 치 부	370-7040	논 설 실	370-7200	
	산업경제부	370-7020	임 원 실	370-7000	
	사 회 부	370-7030	총 무 국	370-7093	
	문화체육부	370-7234	사 업 국	370-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광남)	편 집 부	370-7082	독자관리국	370-7080	
	사 진 부	370-7050	서울지사	02-978-7090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드림투데이와 기사 제휴해 제작합니다. 기사 이메일 도메인으로 광남일보 (gwangnam.co.kr)와 드림투데이 (gjdream.com) 소속 매체를 구분합니다.

기사제보·기고 보내실 곳	전화 062-370-7030 팩스 062-385-5400 이메일 gndn2018@naver.com
---------------	---